

From the MLSAAF Team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MLSAAF의 연구 책임자 최윤선 교수의 인사말



친애하는 MLSAAF 참가자와 가족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MLSAAF는 국립 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H/NIMH)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5년간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차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 봄에 새로운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참가자분들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NIH/NIMH의 지원으로 MLSAAF는 세 차례의 추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차 조사에서는 코디졸, 신체내 염증정도, 그리고 수면의 질과 같은 바이오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데이터는 우리가 종종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합니다.



MLSAAF의 재개는 2014년(1차) 조사의 12~17세 청소년들이 2027년(7차) 25~30세가 될 때까지의 추적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MLSAAF를 특별한 종단연구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중서부 아시아계 미국인 종단연구 데이터는 현재 유일무이합니다. 게다가 가족의 형성과정부터 혁신적인 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MLSAAF 데이터는 아주 풍부하며 특별합니다.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합니다!

진심을 담아,
최윤선 드림

MLSAAF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이신영 (Sinyeong Lee, she/her) 을 소개합니다

신영은 5차 웨이브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신영은 시카고 대학의 사회과학 석사과정 (MAPSS)을 이수하기 위해 2021년에 시카고로 왔습니다. MLSAAF 팀에서 신영은 아시아계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겪는 독자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열정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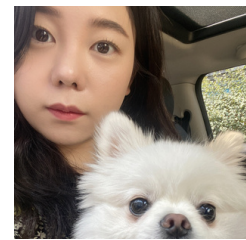
정은석 (Eunseok Jeong, he/him) 을 소개합니다

은석은 2019년 가을에 MLSAAF 팀에 합류한 연구 조교입니다. 현재 Crown Family School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은석의 연구는 인종/민족 소수자의 건강 문제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인종적/민족적/이민자 인구가 경험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ryan Gu (he/him) 를 소개합니다

Bryan은 2020년 가을에 MLSAAF 팀에 합류한 연구 조교입니다. MLSAAF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아시아계 청년들의 정신 건강 기저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적 및 문화적 요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낙인, 내면화된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입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정주혜 (Ju Hye Jung, she/her) 를 소개합니다

주혜는 현재 시카고 대학교 Crown Family School의 대학원생입니다. 주혜는 현재 정신 건강, 정체성 위기,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역학,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과 같은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주혜는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MLSAAF 팀, 그리고 더 큰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상호 배움의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Jessica Hong (she/her) 을 소개합니다

Jessica는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MSW) 1년차 대학원생입니다.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Jessica는 대학에서 Resident Director로 일했으며, 특히 유색 인종 학생들과 성 소수자 학생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복잡한 트라우마와 아시아 인구 및 유색 인종 커뮤니티 내에서의 합리적인 전인적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A Fun New Recipe to Try —

고추장 쿠키를 만들어보세요!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한 에릭킴의 고추장
카라멜 쿠키를 만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조리법이 매우 간단하며 **정말!** 맛있답니다.
이번 겨울에 딱 맞는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레시피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박인영 박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정신건강 문제

- 본 연구는 MLSAAF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가정 요인들이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양상 및 우울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보고했을 때(가족 그물화), 그리고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경험했을 때(세대 간 갈등),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은 더 많은 부정적 정서 양상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우울 증상 증가와도 관련 있었습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부정적 정서 양상을 줄이기, 부모-청소년 관계 개선하기, 그리고 건강한 가족 경계를 설정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바로 이 지점들을 겨냥하여, 우리는 청소년들이 보고한 즉각적인 부정적 정서 경험을 완화하고 우울 증상의 장기적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복잡한 가족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박인영 박사는 보스턴 사회복지 대학(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아시아계 가족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아시아 이민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아시아 이민자 가족을 위한 문화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